

# 치매파트너 간호학생의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관한 융합연구

조상희, 김은하\*  
문경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A Convergence Study on the Knowledge and Attitudes of Dementia Partner Nursing Students on Dementia

Jo, Sang-Hee, Kim Eun-ha\*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Mun-kyung College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치매파트너로서 활동을 경험한 간호학생의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정도를 파악하여 치매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치매파트너로서 활동을 경험한 간호학생 157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들은 치매에 대한 지식수준이(9.77±2.55 점, 범위 0~15점), 치매에 대한 태도가(39.76±4.00, 범위 0~60점)으로 나타났고, 치매 지식과 치매 태도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r=.213, p=.001$ ). 결론적으로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함양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국가 차원의 다양한 정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융합, 간호학생, 치매파트너, 치매, 지식, 태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on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dementia prevention education and program by identifying the degree of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s dementia of nursing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as dementia partners. The participants were 157 nursing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as dementia partners and analyzed by using SPSS 23.0 program. The participants showed knowledge toward dementia(9.77 ± 2.55 points, range 0 ~ 15 points), attitude towards dementia(39.76±4.00점, 0 points, range 0 ~ 60 point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s dementia had a positive correlation ( $r = .213, p = .001$ ). In conclusion, It is imperative to develop a variety of programs as well as drafting national policies that enable the cultivation of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s dementia.

**Key Words** : Convergence, Nursing students, Dementia partners, Dementia, Knowledge, Attitude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의학과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노인인구비율이 2015년 12.8%에서 2065년에는 42.5%로 2.8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1], 2012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유병률이 54만 명에서 2030년 약 127만 명, 2050년에는 약 271만 명으로 향후 매 20년마다 약 2배씩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2].

치매는 뇌기능의 장애 때문에 만성적으로 기억·감정·언어·판단 등의 정신기능이 감퇴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질병이다. 치매는 환자 자신의 삶의 질 저하, 사망률 증가뿐만 아니라 장기간 동안 타인에 대한 의존성

\*Corresponding Author : Eun-Ha Kim (odonna@mkc.ac.kr)

Received January 4, 2018

Accepted July 20, 2018

Revised June 27, 2018

Published July 28, 2018

을 높임으로서 자신을 부양하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심리적·정신적·육체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하여 부양자들의 삶마저 황폐화시키는 중증질환이다[3]. 이에 정부는 2008년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2011년 「치매관리법」을 제정하였으며, 세 차례의 치매종합관리대책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4]. 「제1차 치매종합관리대책(2008~2012)」은 치매 조기 발견 및 예방, 종합적·체계적인 치매치료 관리, 효과적 치매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치매환자 부양 부담 경감 및 부정적 인식 개선의 4대 사업 목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제2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2~2015)」에서의 4대 추진 과제는 치매조기 발견 및 예방 강화, 맞춤형 치료 및 보호 강화, 효과적 치매관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 가족 지원 및 사회적 소통 확대로 설정하고, 치매관리 인프라 확충과 맞춤형 치료 및 보호를 강조하였다.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5~2020)」은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예방, 진단·치료·돌봄 서비스 통합 제공, 치매환자 가족 부담 경감, 연구·통계 등 인프라 확충이라는 4대 정책과제를 추진 중에 있다[4-5].

치매파트너는 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예방과 관리를 위한 추진 정책으로, 치매환자의 존엄성과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공공서비스에서 미치지 못하는 치매환자 가족 서비스 사각지대를 메우는 지역사회 치매 파수꾼으로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치매환자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치매에 대한 이해, 치매파트너의 역할과 활동 이해, 치매극복 캠페인 활동 방법에 관한 2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지역 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 활동 및 치매예방운동법 및 예방수칙 교육, 기타 치매관련 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6].

대학생들은 향후 사회에서 노인부양에 있어 주요 주체가 될 뿐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게 될 대상이며[7], 대학시기에 형성된 가치관과 태도는 앞으로의 사회생활과 일생을 살아가는데 초석이 되는 것이므로 대학생들이 바라보는 치매노인에 대한 시각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핵가족화 현상으로 노인들의 가치와 생활을 익히고 함께 나누는 의미 있는 경험이 부족할 수 있다[8]. 대학생들 중에서 치매노인과 접촉 경험이 있었던 학생들의 경우 가족보다는 주로 치매노인 봉사활동을 통한 경험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

간호학생들의 경우 임상 상황에서 치매를 가진 노인들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 치매의 증상은 대상자별로 다양하게 나타나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면 치매노인이 발생하였을 때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부적절한 초기대응으로 환자 및 가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10]. 따라서 간호학생들은 이러한 치매 노인들에게 총체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치매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11].

태도는 행동의 근거가 되며, 이러한 태도는 지식의 영향을 받는다[12]. 이는 간호학생들의 치매에 대한 지식이 치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며, 선행연구들에서 치매지식이 높을수록 치매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13-15]. 그러나 간호학생은 일반노인에 비해 치매를 가진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매 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치매 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간호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16]. 치매노인은 그럴 것이다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초기에 관심 있게 접근을 하면 일반환자보다 훨씬 많이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면서 간호를 더 잘할 수 있고, 향후 환자의 상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므로 치매노인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하다[17].

지금까지 치매에 대한 대학생들의 지식과 태도를 알아보는 선행연구들은 이루어졌으나[9,13,15,20,25], 치매파트너와 같은 국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치매파트너 활동을 하는 간호학생의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를 조사하고 이들 요인들의 상관성을 파악하여 치매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국가 차원의 다양한 정책 적용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치매파트너로서의 활동 경험이 있는 간호생의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관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매에 대한 지식 및 태도를 파악한다.

셋째, 치매에 대한 지식과 치매태도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치매파트너 활동 경험이 있는 간호학생 2.3.4학년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M시에 소재한 일 개 대학에 재학 중이며,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파트너로서 지역 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를 2시간 3회 실시한 학생들 중 본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필요한 표본 수는 134명이었다. 16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이 중 불완전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157명(98.1%)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7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0월 20일까지 수집하였고, 질문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작성에는 약 10분~15분이 소요될 것을 설명한 후, 자료 수집을 진행 하였다. 또한 설문참여를 원치 않는 학생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설명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치매에 대한 지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치매 지식 측정도구는 치매지식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개발한 치매에 관한 영역별 지식 측정도구[18]를 이용하였다. 측정도구는 치매원인 5문항, 역학 및 제도 3문항, 증상 및 진단 4문항, 치료 및 예방 3문항 등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예', '아니오', '모른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고 정답은 1점, 오답과 '모른다'는 0점으로, 점수범위는 최소 0점에서 최대 15점까지 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치매에 대한 지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치매지식에 대한 신뢰도는 조맹제 등의 연구[18]에서 Cronbach' alpha는 .7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62였다.

#### 2.3.2 치매에 대한 태도

치매태도측정도구는 이영휘[19]가 개발한 도구를 이

용하였다. 긍정적 9문항, 부정적 문항 6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15문항이다.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최소 15점에서 최대 60점 범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치매에 대한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긍정적 9문항(1, 2, 3, 4, 5, 6, 7, 10, 11)과 부정적 문항 6문항(8, 9, 12, 13, 14, 15)으로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으로 점수 계산을 하였다. 이영휘의 연구[19]에서 도구의 내적신뢰도 Cronbach' alpha는 .7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5였다.

### 2.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구사회학적 특성, 노인 및 치매관련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실수와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분석 하였다.
- 2)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 대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test 검증 및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분석하였고, Scheff 방식으로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다.
- 3) 대상자의 치매 지식과 태도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과 같이 성별은 여자가 141명(89.8%)으로 가장 많았고, 학년은 3학년이 83명(52.9%)으로 가장 많았다. 치매에 대한 관심이 있는 대상자는 136명(86.6%)이었으며, 가족원 중 치매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33명(21.0%) 이었고, 임상 실습 중 치매환자를 간호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91명(58.0%)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57

Variables	Categories	n(%)
Gender	Male	16(10.2)
	Female	141(89.8)
Grade	2nd grade	28(17.8)
	3rd grade	83(52.9)
	4th grade	46(29.3)

Interest in the Dementia	Yes	136(86.6)
	No	21(13.4)
Family with the Dementia	Yes	33(21.0)
	No	124(79.0)
Nursing Experience for People with Dementia during Clinical Practice	Yes	91(58.0)
	No	66(42.0)

### 3.2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

Table 2와 같이 대상자의 치매에 대한 지식 점수는 총 15점 만점에 평균 9.77±2.55점이었으며, 치매에 대한 태도는 총 60점 만점에 39.76±4.00점이었다.

Table 2. Degree of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dementia N=157

Characteristics	M(±SD)
Knowledge	9.77(±2.55)
Attitude	39.76(±4.00)

### 3.3 대상자 특성에 따른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

Table 3과 같이 대상자의 치매에 대한 지식 점수는 치매에 대한 관심, 임상실습 중 치매 대상자 간호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치매에 대해 관심이 없는 대상자보다 치매에 대해 관심이 있는 대상자(t=2.343, p=.020)가, 임상실습 중 치매 대상자 간호 경험이 없는 대상자보다 간호 경험이 있는 대상자(t=2.63, p=.009)의 치매점수가 유의하게

Table 3. Knowledge and attitude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N=157

Variables	Categories	Knowledge		Attitude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Gender	Male	8.62±3.40	-1.45(.163)	2.84±0.32	-1.56(.121)
	Female	9.90±2.42		2.96±0.30	
Grade	2nd grade	9.10±3.04	2.55(.081)	2.90±0.30	0.95(.388)
	3rd grade	9.63±2.44		2.94±0.32	
	4th grade	10.41±2.33		3.00±0.27	
Interest in the Dementia	Yes	9.95±2.56	2.34(.020)	2.98±0.30	3.16(.002)
	No	8.57±2.18		2.76±0.24	
Family with the Dementia	Yes	10.21±2.74	1.11(.266)	3.04±0.31	1.77(.078)
	No	9.65±2.50		2.99±0.30	
Nursing Experience for People with Dementia during Clinical Practice	Yes	10.21±2.42	2.63(.009)	3.01±0.31	2.62(.009)
	No	9.15±2.62		2.88±0.29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 학년, 가족원 중 치매 진단 대상자, 치매를 가진 사람을 돌본 경험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대상자의 치매에 대한 태도는 치매에 대한 관심, 가족원 중 치매 진단, 치매를 가진 사람을 돌본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치매에 대한 관심이 없는 대상자보다 치매에 대해 관심이 있는 대상자(t=3.165, p=.002)가, 가족원 중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보다 받은 경우(t=1.774, p=.078)가, 치매를 가진 사람을 돌본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t=2.737, p=.007)가, 임상실습 중 치매 환자를 간호한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t=2.629, p=.009)에 치매에 대한 태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성별, 학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 3.4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와의 상관 관계

Table 4와 같이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와의 관계는 r=.213(p=.001)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knowledge and attitudes about dementia in participants N=157

구 분	Dementia Knowledge	Dementia attitude
Dementia Knowledge	1.000	.213**
Dementia attitude	.213**	1.000

\*\*p<.01

#### 4. 논의

본 연구는 치매파트너를 경험한 간호학생의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파악하여 미래 임상 간호현장에서 치매노인에게 간호를 제공하게 될 간호학생의 치매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국가차원의 다양한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치매에 대한 지식은 15점 만점에 9.77점  $\pm 2.55$ 로 중간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와 지식에 대한 도구가 달라 비교분석이 어렵지만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Kwon과 Lee[15]의 연구에서는 치매노인에 대한 지식점수가 총30점 만점에 15.86점으로 중간점수를 겨우 넘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급성기 병원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21]의 연구에서는 16점 만점에 11.02점으로 중위값 정도의 점수를 보였고, 치매지원센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o, Han과 Kim[22]의 연구에서는 20점 만점에서 평균 18.14점으로 높은 지식 상태를 보였다. 본 연구와 Kwon과 Lee[15]의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대상자는 다르나, Lee[21]의 연구에서는 치매관련 교육을 받은 간호사는 46%로 나타났고, 치매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대상자 중 71%가 간호대학 교육과정에서 치매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Ko, Han과 Kim[22]의 연구에서는 치매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간호사는 94.1%로 나타났으며, 참여한 치매교육 종류는 치매간호사 전문교육, 보수교육, 학회 교육, 노인 전문간호사 교육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치매교육이 중요하고 지식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치매교육이 필요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대상자의 치매에 대한 태도는 60점 만점에  $39.76 \pm 4.00$ 점으로 나타났다. 치매에 대한 태도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부분은 “노인들에게 치매 예방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과 “나는 사람들이 치매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와 관련된 문항이었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부분은 “내가 치매에 걸렸다면 집을 떠나 살겠다” 등과 관련된 문항이었다.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부분은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고[15].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Baik, Won과 Kim[23]의 연구에서 치매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는 부정적인 부분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학생들이 치매에 대한 관심이 있고 치매에

대한 예방교육이 필요함을 인식을 하나, 치매에서 발현되는 행동심리 증상 등에 대한 치매환자 간호에서의 부담감과 거부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2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매에 대한 지식 정도는 치매에 대한 관심이 있는 대상자, 임상 실습 중 치매환자 간호의 경험이 있는 대상자에서 지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Kwon과 Lee[15], Shin 등[25]의 연구에서는 치매문제에 관심이 있고, 치매환자를 돌본 경험이 있는 경우 치매 지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향후 간호현장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게 되는 간호학생에게 노인간호학 이론 및 임상실습 교육과정에서 치매교육 및 치매환자 간호경험을 갖도록 하여 치매에 대한 지식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급성기 환자 실습지[26] 및 다양한 실습지의 확보가 필요하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매에 대한 태도에서 치매에 대한 관심이 있는 대상자, 가족원 중 치매진단을 받은 경우가 있는 대상자, 임상 실습 중 치매환자 간호 경험이 있는 대상자에서 치매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27].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족력이 있는 경우, 관심도가 많을수록 치매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20], 간호학생들이 임상실습 경험 후 치매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27].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치매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접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최근 중앙치매센터에서는 치매 친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일반인과 청소년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이해 및 치매환자와 가족을 도와주고 지지하는 치매파트너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21].

치매 지식과 치매 태도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Hwang, Kim과 Kim[28], Jo[20], Kim 등[13] 연구에서 본 연구와 유사하게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치매노인에 대한 지식습득이 치매노인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학부 교육과정과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치매관련 교육을 통하여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방안 중 하나인 ‘대

학생 치매파트너'를 대상으로 파트너로서 지역 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진 및 홍보활동에 참여하여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평가한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미래의 간호사로서 이러한 정책적 활동을 통해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 변화를 함양하여 노인간호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 개 대학 치매파트너 활동을 경험한 간호학생의 치매에 대한 태도와 지식 정도를 조사하고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간호학생들은 지역 내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파트너 활동을 통하여 치매노인에 대한 이해를 높여 치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치매노인에 대한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 치매봉사 활동, 각종 치매와 관련된 행사 등을 통한 노인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치매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치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적용 이후,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 REFERENCES

- [1] Statistics (2015). *Population projections for Korea Seoul* : Kostat.
- [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 *Nationwide study on the prevalence of dementia in Korean elders*.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3] H. Cho & Z. K. Ko. (2012). Current state of senile dementia and improvement of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for Elderly Peopl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3(12), 5816-5828.  
DOI : 10.5762/KAIS.2012.13.12.5816
- [4] M. K. Kim & K. H. Seo. (2017). A comparative study on the national dementia policy. *National Policy Research Institute*, 31(1), 233-260.
- [5] S. J. Go, Y. H. Jung & D. Y. Kim. (2016). *The social burden and care management for people with dementia*. Sejong : KIHASTA
- [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Dementia policy business information*,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7] H. J. Lee. (2006). Care giving experience and adaptation process of the husbands who are caring for wives with Alzheimer-focusing on elderly couple household.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6 (1), 45-62.
- [8] M. S. Lee & S. N. Yang. (2012). Effect of social work student's attitude, knowledge and experience with senior citizen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0(8), 265-273.
- [9] M. J. Park, H. K. Moon & D. N. Oh. (2017). Effects of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s dementia on social distance from senile dementia among University students. *Health Nursing*, 31(3), 554-566.  
DOI : 10.5932/JKPHN.2017.31.3.554
- [10] M. S. Lee, M. C. Kim & S. G. Kim. (2014). Study on attitude of College students and physical therapists towards seniors with dementi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 2(2), 21-29.  
DOI : 10.15268/ksim.2014.2.2.021
- [11] S. K. Das, S. Pal & M. K. Ghosal. (2012). Dementia: Indian scenario. *Journal of Neurology India*, 60(6), 618-624.  
DOI : 10.4103/0028-3886.105197
- [12] K. A. Kim, K. A. Kim & M. R. Sung. (2012). A study on the level of dementia-related knowledge and attitude among care workers - focusing on the care workers who got education on dementia in Seoul dementia center, *Korean Journal of Care Management*, 6, 23-51.
- [13] S. H. Kim, O. H. An & D. H. Park. (2015). Nursing students and social welfare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dementia, *Journal of Korea Convergence Society*, 6(3), 111-117.  
DOI : 10.15207/JKCS.2015.6.3.111
- [14] B. Y. Oh. (2016). A study of knowledge and attitude, influenced factors on dementia in cyber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Welfare and Counselling Education*, 5(1), 111-127.
- [15] M. S. Kwon & J. H. Lee. (2017). Analysis of knowledge, attitude and service requirements about dementia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9), 177 - 185.  
DOI : 10.5762/KAIS.2017.18.9.177
- [16] J. H. Kim. (2006). Effects of gerontological nursing practicum on attitudes toward elders with dementia and general elders among Korea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6(4), 645-651.

- [17] G. C. Kim & Y. H. Lee. (2017). Nurses' experiences of end of life care of older adults with dementia.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9(2), 119-130.  
DOI : 10.7475/kjan.2017.29.2.119
- [18] M. J. JO et al. (2008). *Nationwide study on the prevalence of dementia in Korean elders*. Sejong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19] Y. W. Lee. (2007). *Annual report for Namgu dementia caring center*. Incheon.
- [20] J. Y. Cho. (2016). Analysis of knowledge, attitude, and educational needs toward dementia in University stud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12), 257-265.  
DOI : 10.14400/JDC.2016.14.12.257
- [21] M. R. Lee. (2016). The relationship among dementia care knowledge, attitudes toward to dementia and approach to dementia care of nurs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12), 357-367.  
DOI : 10.14400/JDC.2016.14.12.357
- [22] I. S. Ko, E. K. Han & D. R. Kim (2017). Relationship among dementia knowledge, attitude, and care burden of nurses in center for dementia. *Journal of Korea Convergence Society*, 8(9), 67-75.  
DOI : 10.15207/JKCS.2017.8.9.067
- [23] S. H. Baik, J. S. Won & M. C. Kim. (2017). A convergence study of Korean adults' awareness and attitudes toward dementia. *Journal of Korea Convergence Society*, 8(9), 191-197.  
DOI : 10.15207/JKCS.2017.8.9.191
- [24] M. J. Cho et al. (2008). *Nationwide study on the prevalence of dementia in Korean elders*. 1-243,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25] J. H. Shin, H. J. Seo, K. H. Kim, K. H. Kim & Y. J. Lee. (2015). Knowledge about dementia in South Korean nursing students: a cross-sectional survey. *BMC Nursing*, 14(1), 67.  
DOI : 10.1186/s12912-015-0116-4
- [26] Y. Kang, W. Moyle. & L. Venturato. (2011). Korean nurses' attitudes towards older people with dementia in acute care settings. *International Journal of Older People Nursing*, 6(2), 143-152.  
DOI : 10.1111/j.1748-3743.2010.00254.x
- [27] H. Y. Kang, M. J. Chae, H. S. Seo & K. M. Yang. (2013). The Effect of dementia education program o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19, 69-77.  
DOI : 10.5977/jkasne.2013.19.1.69
- [28] H. Hwang, B. K. Kim & H. R. Kim. (2013). A study on dementia-related knowledge and attitudes in

adolescents. *Korean Academic Society Of Rehabilitation Nursing*, 16(2), 133-140.  
DOI : 10.7587/kjrehn.2013.133

## 조 상 희(Sang-Hee Jo)

[정회원]



- 2006년 2월 : 부산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0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박사수료)
- 2013년 3월 ~ 2014년 2월 : 한영대학 간호과 교수
- 2014년 3월 ~ 현재 : 문경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 노인간호, 호스피스간호
- E-Mail : real42@mkc.ac.kr

## 김 은 하(Eun-ha, Kim)

[정회원]



- 2010년 2월 : 국립경상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7년 2월 :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간호학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문경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 노인간호
- E-Mail : odonna@mkc.ac.kr